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보상부터 난항

### 지난 9월 보상비 354억→1744억원 상향됐지만 보상률 50% 그쳐... 도로시계획위에 연장 요청 JDC "지난 6월에야 보상 돌입... 내년쯤 마무리"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토지보상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 안건은 다음달 19일까지로 예정된 토지보상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단지내 준공업지역 및 보전녹지를 정하는 '세부용도 결정'으로 알려졌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에 정보와 생명공학, 환경공학, 문화콘텐츠 기술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은 산업시설용지 37만4264㎡

(44.1%), 공공시설용지 33만5875㎡(39.6%), 복합용지 5만6469㎡(6.7%), 주택용지 5만2117㎡(6.1%) 등이다. 사업비는 당초 1044억원이었지만, 보상비와 조성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난 9월 274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상비는 354억원에서 1744억원, 조성비는 365억원에서 543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JDC는 '제2첨단단지'이라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토지 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기한을 한 달 앞둔 18일 현재까지도 보상률이 약 50%에 머물면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JDC 관계자는 "사업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지난 6월에야 보상을 한 것도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행정 절차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보상이 이뤄지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언론자유 침해 법무부 훈령 철회를"

### 신문협회, 성명 통해 촉구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훈령에 대해 "이는 검찰청의 전문공보권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만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하

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있다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훈령에 대해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취재단

# 서귀포 산모 3명중 1명꼴 지역서 출산

### 올10월까지 출생아 905명중 관내 분만 35.8%... 작년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도 증가

서귀포시 관내 분만율과 2곳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2013년 3월 공공산후조리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개원후 2017년부터 서귀포의료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14실)과

2016년 4월 개원한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13실)이 운영중이다. 18일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서귀포시 출생아 905명 중 지역 유일의 분만산부인과인 서귀포의료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324명으로 관내 분만율은 35.8%로 나타났다. 여전히 제주시에서 분만하는 산모가 더 많지만 서귀포시가 2014년 분만의료취약지역 선정을 의료원이 시설·장비를 지원받아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한 후 관내 분만율은 2015년 6.8%에서

2016년 14.6%, 2017년 20.6%, 2018년 30.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곳의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올해 10월까지 428명으로, 작년 연간 이용자 467명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182명 중 이용료의 50% 감면혜택을 받는 셋째 이상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산모 등은 112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176명 중 감면받은 이는 111명이었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

는 다자녀 출산 산모와 취약계층이 꾸준함에 따라 서귀포보건소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축·리모델링과 감염예방 확대를 추진중이다. 증축·리모델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감염예방 확대를 제주도도와 논의하고 있다. 또 이용자 감면 대상에는 4·3 유족과 배우자도 추가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전국에서 처음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이나 다태아 출산 산모, 저소득층의 감염예방 확대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흥동 중산간도로 일대서 이뤄지고 있는 태풍피해 복구 공사현장. 현장에는 안전확보의 일환으로 왕복 4차로가 왕복 2차로로 제한돼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태윤기자

# 4차로→2차로 통행제한 출퇴근길 '불편'

### 서흥동 중산간도로 일대 태풍 피해복구 공사로 정체

서귀포시가 서흥동 중산간도로 일대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상의 이유로 왕복 4차로 도로를 왕복 2차로로 제한해 통행하도록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서귀포시 중산간도로(구 서흥동사무소 서측)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복구 공사는 지난 10월 태풍 청구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105개소, 이·미용업 23개소, 세탁업 2개소, 숙박업 8개소 등 총 138개소이며,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은범기자

왕복 2차로로 제한해 통행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제한된 차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나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운전자 허모(33)씨는 "차로가 제한되면서 출·퇴근 시에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 불편 사항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복구 공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전문단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차로 등을 제한하게 됐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복구공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조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8일 제주도와 글로벌 기업 Pix4D S.A. (주)드론오렌지가 '제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 제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 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기업 Pix4D S.A.(CEO Christoph Strecha) 및 (주)드론오렌지(대표 정남)와 '제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Pix4D는 세계적인 사진 측량 후

처리 전문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의 협력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특히 드론 기반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인 Pix4D와 제주도 지역기업(주)드론오렌지가 함께 제주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 스마트아일랜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 이후 Pix4D S.A. CEO Christoph Strecha로부터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술과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 그리고 세계트렌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착한가격업소 10% 할인 구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할인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할인 구간은 최근 소비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해 음식점과 이·미용실, 세탁소 등 개인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할인 구간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NH농협금융 또는 제주은행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청구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105개소, 이·미용업 23개소, 세탁업 2개소, 숙박업 8개소 등 총 138개소이며,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은범기자

##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 앵배추브로컬리무우앵배추 → 희소식

###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b>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li> <li>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li> <li>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li> </ul>
<b>감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li> <li>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li> </ul>
<b>무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li> <li>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li> </ul>
<b>마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li> <li>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li> <li>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li> </ul>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